



신개념 노안교정술 '레인드롭'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

'각막 임플란트'...근시·원시·야간 시력 개선

10분 수술 직후 바로 효과

안구건조·녹내장 환자 피해아

눈은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신체기관이다. 노안이 오면 상대적으로 먼 거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는 흐리게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40대 이후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으로 노안의 발병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노안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초기에는 교정 안경을 착용하고 평소에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화될 경우 안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노안교정술을 받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최신 노안교정술 레인드롭=노안교정술은 환자의 눈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술법이 꾸준히 개발돼 왔지만 기존 수술은 원거리 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노안교정술인 '레인드롭(Raindrop)'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밝은광주안과는 신개념 노안교정술 '레인드롭(Raindrop)'을 호남 최초로 도입해 시술하고 있다.

레인드롭 교정술은 미국 노안 치료 전문 기업 ReVision Optics(리비전 옵티스)가 개발한 생체 친화적인 노안교정술로 근거리 시력 개선 효과는 물론 기존 노안수술의 단점인 중간거리 시력을 향상시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노안수술을 할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원거리 시력을 떨어뜨려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지만 레인드롭의 경우 원거리 시력 저하가 최소화된 장점이 있다.

레인드롭 노안교정술은 실제 사람의 각막과 매우 흡사한 재질로 직경 2mm, 30마이크로 두께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투명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다. 이는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의 반보다도 얇은 두께로 마치 눈 속에 빗방울 하나를 떨어뜨린 것과 같다고 해 레인드롭(Raindrop)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레인드롭은 쉽게 말해 '각막 임플란트'로 먼저 펌프제션드레이저를 사용해 각막절편을 만든다. 그리고 동공 중심에 레인드롭 렌즈를 올리고 각막절편을 덮어 렌즈를 고정시킨다. 수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수술 직후 바로 근거리 시력이 회복된다는 장점이 있다.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이 50대 노인환자에게 '레인드롭' 노안 교정수술을 하고 있다.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력 유지= 레인드롭은 수술 직후 근거리 시력이 교정되고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까지 개선되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프로포콜 테크놀로지'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레인드롭 렌즈를 삽입하면 각막 중심부가 마치 볼록한 돋보기 렌즈를 삽입한 것처럼 두꺼워지는데 주변부로 갈수록 점차로 경계가 매끈해진다. 이런 원리로 각막 중심부로는 근거리를, 주변부를 통해 중간거리 및 원거리 시력이 개선되며 이것을 '프로포콜 테크놀로지' 기법이라고 한다.

레인드롭은 수술 직후 근거리 시력이 향상돼 수술자의 대부분이 매우 만족했다. 이는 노안이 시작된 40대부터 이미 노안이 많이 진행된 60대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수

술자 대부분 수술 후 근거리 시력 J3 이상(글자크기 6 Point 정도)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다. 또한 근시, 난시, 원시가 심할 경우에는 라식수술처럼 엑시머레이저를 통해 교정한 후 레인드롭 렌즈 삽입이 가능하다.

렌즈에 노안교정술의 경우 안내렌즈삽입처럼 눈 속에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렌즈의 생체 적합성도 매우 중요하다. 레인드롭은 80% 이상 수분으로 구성됐으며 수술 후 각막 내 영양분을 98~100% 유지한다. 또한 99.7%까지 빛을 투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환경으로 들어갈 때도 시력이 저하되지 않아 야간 운전이 한결 편해졌다는 환자들이 많다.

수술 후 시력이 안정화되기까지 약 한달

가량 소요되지만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실내 활동 등은 하루 이틀 내에 거의 가능하다. 또한 무방부제 인공눈물로 수술 후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3개월 정도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안약 사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수술은 각막두께가 너무 얇거나 안구건조증, 녹내장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김재봉 대표원장은 "40대 이상으로 노안이 진행돼 돋보기가 필요한 환자라면 누구나 레인드롭 노안교정술의 대상"이라며 "레인드롭은 다른 노안교정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며 중간거리 및 야간시력도 개선해 노안으로 불편함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른둥이·가족 격려 홈커밍데이 성료

전남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60여 가족 참석

전남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센터장 최영문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24일 전남대병원 6동 백년홀에서 이른둥이(미숙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여섯번째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 행사는 출생체중 1500g 미만의 극소저체중출생아로 태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이른둥이와 가족들을 매년 가정의 달인 5월에 초청, 그간 치료과정서 힘들었던 시간을 서로 격려하고 이른둥이의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이른둥이 60여 가족 등 총 1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스마일 포토존, 캐릭터 인형들과 기념촬영 및 플라로이드 즉석사진 촬영,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영유아 상담, 부모의 육아일기와 가족 장기자랑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준비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9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으로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지정된 전남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현재 45병상 규모에 매년 1500g 미만의 극소저체중출생아(120여명)를 포함한 1000여명의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고 있다.

이날 최영문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이른둥이를 건강하고 훌륭히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자산"이라며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세계로병원 '제3기 소화기건강대학' 입학식

세계로병원(원장 정재훈)이 최근 '제3기 소화기건강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세계로병원 제3기 소화기건강대학은 올바른 건강 관리를 습관화하고, 질병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오는 7월 8일까지 8주간 총16강(매주 화요일)을 병원 본관10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사진>

이번 소화기건강대학은 중·장년층 연령에 맞는 고혈압과 당뇨, 주요 만성 질환의 자가 관리, 뇌졸중, 비만 등의 예방 및 관리 요령과 같은 생활 속 관심도가 높은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를 주로 다룬다. 교육대상은 광주시민으로 100명을 선발해 건강리더를 양성할 예정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소화기건강대학은 1기 71명, 2기 7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일선 교수의 '노인성 치매와 우울증' 광주일보 제91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30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30일 제91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의 내용은 6월2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이번 강좌는 '노인성 치매와 우울증'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신일선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치매



의 정의, 증상·원인, 진단·검사, 치료·예방에 대해 알아보고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관계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된다. 신 교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세계노인정신의학회 등의 학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진료분야는 치매·노인정신의학·기질성 정신의학 등이다. 문의는 전남대병원 홍보실 062-220-5092, 교육연구실 062-220-6082.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백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울진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순창군	063653-0444
군산시	063467-2500	고창군	070-8201-0370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원시	063633-9911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영광군	351-0055	곡성군	362-8111
함평군	324-8111	구례군	782-4696
무안군	452-8535	나주시	336-4759(군) 335-5501(시)
신안군	278-8111	목포시	276-9200
영암군	471-1717	화순군	374-4423
장흥군	863-8822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교)
강진군	434-6830	장수군	837-8822
해남군	537-6767	고흥군	842-2121
진도군	543-0100	완도군	554-6677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